

2000년대 중반 이래 노동조합의 쇠퇴

김정우 | 한국노동연구원 패널데이터연구실 사업체패널팀 팀장(kjw@kli.re.kr)

KLI PANEL
Brief

- 한국의 노조조직률은 2000년대 중반 이후 10%대에서 큰 변동이 없는데, 한국의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적용률은 2013년을 기준으로 노조조직률인 10.0%보다 약간 높은 11.7%에 불과함
- 이는 평균 노조조직률인 26.4%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협약적용률을 보이고 있는 OECD평균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임
-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한 30인 이상 사업체의 노조조직률은 2005년(26.1%)에서 2013년(21.3%)까지 꾸준히 감소하였고, 협약적용률 역시 34.3%에서 27.0%로 하락하여, 이 시기에 노동조합(의 힘)은 쇠퇴한 것으로 보임
- 2005년에서 2015년까지 전체 노동조합원수는 28.8% 증가했으나 임금근로자의 증가를 따라잡지 못해 노조조직률은 정체됨
-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산업별, 직종별 고용구조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이러한 일자리 구조의 변화가 더딘 신규조직화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발견됨
- 유노조 사업체에서 비정규직이 노조 가입대상에서 배제되는 비율이 정규직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노조조직화의 진전을 위해서는 무노조 사업체의 노조설립 뿐 아니라 유노조 사업체에서 좀 더 비정규직을 노조로 포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1. 배경 및 목적

-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9년의 19.8%를 정점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해왔으며 특히 2004년 10.6%를 기록한 이래 줄곧 10% 내외의 상대적으로, 또한 절대적으로 낮은 조직률을 보임(2010년에는 9.8%라는 한자리 수 조직률을 기록)
- 노조조직률의 하락은 서구의 산업 국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며, 90년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 한국의 노조조직률 하락이 그 규모나 비율 측면에서 유난히 두드러진 것은 아님(표 1 참조)
- 그러나 노조조직률에 비해 훨씬 높은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적용률을 보이고 있는 유럽 국가들 및 OECD 평균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협약적용률은 노조조직률과 별 차이가 없음(그림 1 참조)
 - 2013년을 기준으로 OECD국가의 평균 노조조직률은 26.4%지만 협약적용률은 50.4%로 거의 두 배에 달하며, 특

히 독일과 프랑스는 협약적용률이 노조조직률의 각각 3배 및 12배를 상회함(독일의 노조조직률은 18.1%, 협약적용률은 57.6%, 프랑스의 노조조직률은 7.7%, 협약적용률은 98.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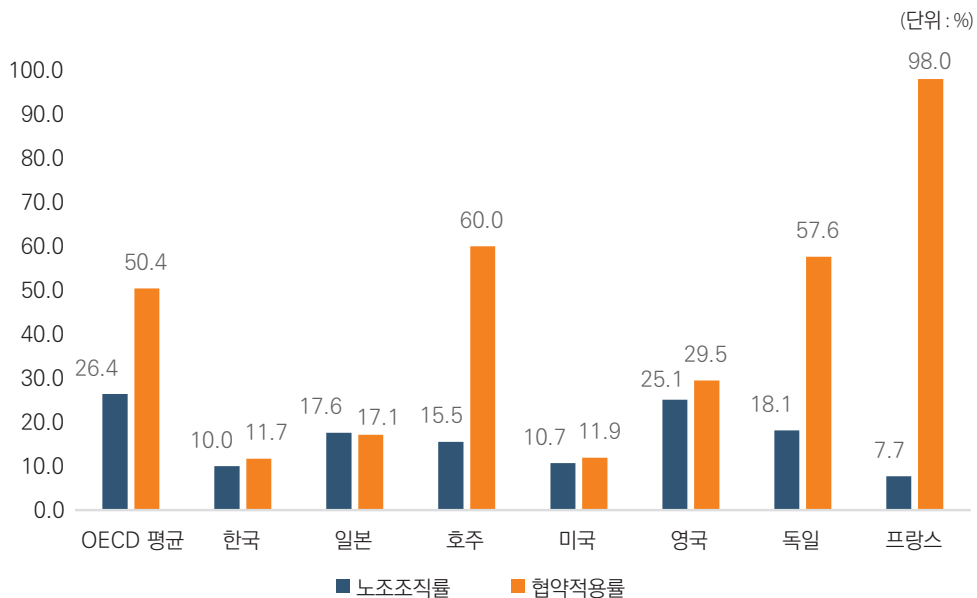
〈표 1〉 연도별 주요국의 노동조합 조직률(1995~2014)

(단위: %)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증감율
한국	13.8	12.0	10.3	10.3	10.8	10.5	10.1	9.8	10.1	10.3	10.3	10.3	-25.4
일본	23.8	21.5	18.8	18.3	18.3	18.2	18.5	18.4	19.0	18.0	17.8	17.6	-26.1
호주	32.7	25.7	22.3	20.2	18.5	18.6	19.3	18.4	18.5	18.2	17.0	15.5	-52.6
영국	32.4	29.8	28.6	28.3	28.0	27.5	27.4	26.6	26.0	26.1	25.6	25.0	-22.8
미국	14.9	13.4	12.0	12.0	11.5	11.6	11.9	11.8	11.4	11.3	10.8	11.1	-25.5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16), 『2016 KLI 해외노동통계』, p.108.

〔그림 1〕 2013년 기준 주요국의 노조조직률 및 협약적용률



자료 : OECDE(2016), Economic Policy Reform.

- 이 글의 목적은 사업체패널조사를 활용하여 노동조합 조직률 및 협약적용률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2000년대 중반 이래 노동조합의 쇠퇴경향을 확인해보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사업체패널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를 통해 탐색적으로 재구성하는데 있음

2.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로 본 노동조합 조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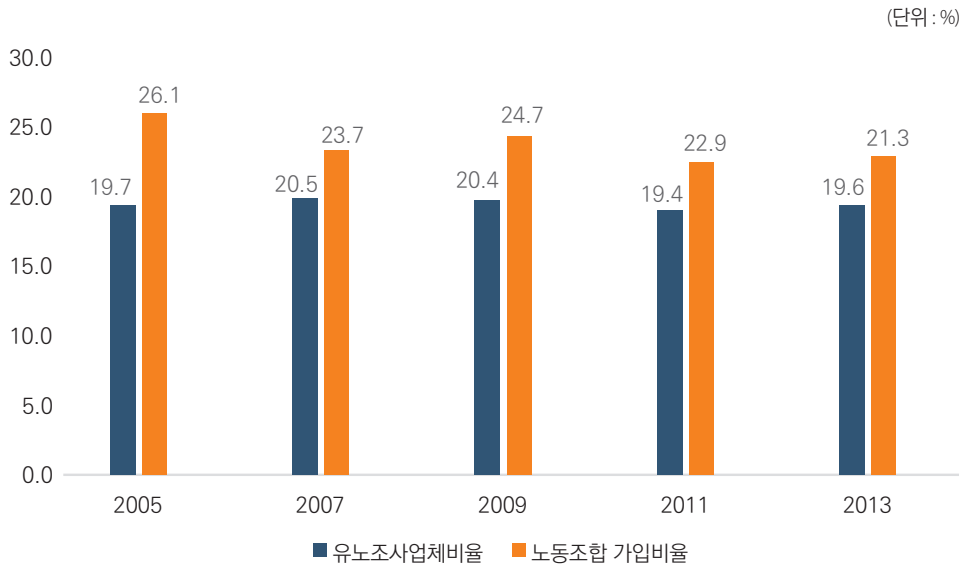
- 노동조합은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자 노동시장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노동조합의 힘을 측정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항목이 노동조합 조직률임
 - 노조조직률은 주로 국가 전체의 노동조합원수를 임금근로자수로 나누어 측정하는데, 일국에서 노조교섭력을 판단하는 유용한 지표로 활용됨

자료 특성 및 배경

- 아래의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격년 주기로 조사하는 사업체패널 자료로서 3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되므로 앞의 우리나라 전체 지표와는 그 결과 값이 다를 수 있음
 - 사업체패널 조사에서 노조조직률과 비슷한 개념으로 계산할 수 있는 값은 노동조합 가입률인데, 사업체패널 조사는 한 사업체의 내부근로자, 즉 사업체와 직접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정규직 및 직접고용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시간제, 일용근로자) 중 어느 정도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음

2000년대 중반 이래 노조조직률의 변화

[그림 2] 노동조합 가입률의 변화(2005년~2013년)



주: 각 년도의 횡단면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 값임
 자료: 사업체패널조사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자료.

- 사업체패널조사를 통해 계산한 노동조합 가입률은 적게는 21.3%(2013년), 많게는 26.1%(2005년)의 수준을 보여, 사업체와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 4~5명 중 1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같은 기간 국가 전체의 노조조직률 수치인 10% 정도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인데, 사업체패널조사의 조사대상이 30인 이상 사업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할만한 수준임
- 주목할 만한 것은 30인 이상 사업체에서 노동조합 가입률이 추세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수치는 2005년의 26.1%에서 2013년에는 21.3%로 4.8%p 감소함

- 한편 전체 사업체 중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체의 비중은 19.4~20.5%로, 3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 5개 중 1개 정도에는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로 본 단체협약 적용률

- 노동조합 교섭력의 수준을 측정함에 있어 노조조직률 못지않게 중요한 지표는 임금 및 단체협약의 적용률, 즉 전체 근로자 중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체결한 임금 및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이하 협약적용률)이라 할 수 있음
 - 예컨대 [그림 1]의 프랑스와 같이 상대적으로 노조조직률이 낮더라도 단체협약 적용률이 매우 높으면 노동조합의 교섭력은 단순히 노조조직률로 판단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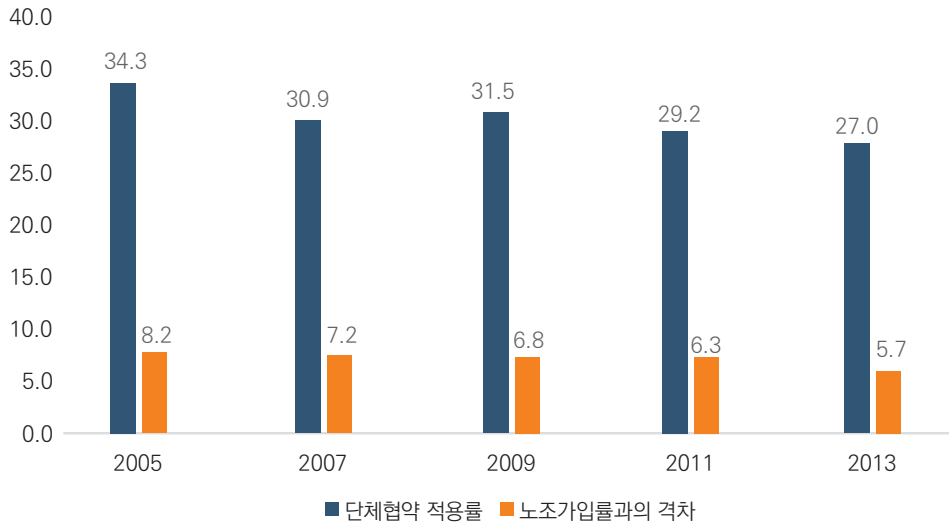
자료 특성 및 배경

- 현재 단체협약이 각각의 개별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는 사실상 없으므로 이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조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5조)을 통해 추정할 수밖에 없음
 - 이 조항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 혹은 사업체에 종사하는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전체 근로자에게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됨
 - 즉 사업체의 상시사용 근로자 중 반수 이상이 조합원인 경우, 노동조합과 체결된 단체협약은 비조합원에게도 모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 사업체패널조사는 사업체내부 근로자(정규직 및 직접고용비정규직)와 노동조합원수를 조사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과반수 노조 여부를 식별할 수 있고 다시 일반적 구속력 조항을 적용하면 전체 근로자 중 단체협약 적용 근로자의 규모, 즉 협약적용률의 계산이 가능함
 - 박지순(2010)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 조직현황 2009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협약적용률의 실태를 분석했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35조만을 고려한 단협 적용률이 11.8%라고 보고한 바 있음

2000년대 중반 이래 협약적용률의 변화

[그림 3] 단체협약 적용률의 변화(2005~2013년)

(단위 : %)



주 : 각 년도의 횡단면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 값임.
 자료 : 사업체패널조사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자료.

- 사업체패널조사로 추정된 30인 이상 사업체의 협약적용률은 27.0~34.3%로 나타나, 협약적용률은 노조조직률보다 적게는 5.7%p(2013년)에서 많게는 8.2%p(2005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즉 협약적용률이 노조가입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지 못하며, 유노조사업체의 비노조원 중 일부만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노조조직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협약적용률도 추세적으로 분명하게 하락하고 있으며(2005년 34.3%, 2013년 27.0%), 협약적용률과 노조조직률과의 격차 역시 일관되게 줄어들고 있음(2005년 8.2%p, 2013년 5.7%p)
- 이상의 결과, 즉 노조가입률과 협약적용률, 노조가입률을 상회하는 협약적용률의 크기가 모두 일관되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대체로 한국의 30인 이상 사업체에서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2005년에서 2013년 사이에 쇠퇴하고 있다는 지표라 판단됨

4. 노조조직률 하락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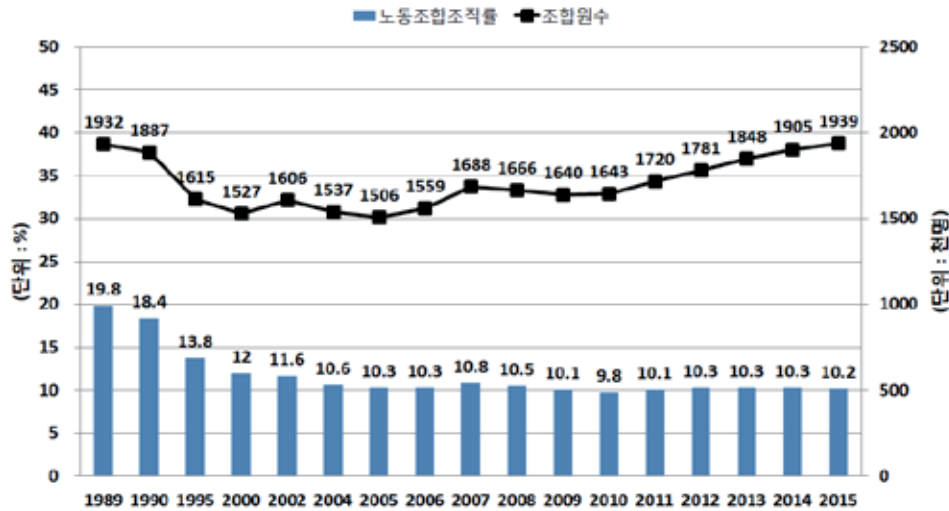
- 노동조합 조직률의 하락의 원인은 개인의 선호를 중심으로 하는 미시적 관점과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구조변화를 배경으로 하는 거시적 관점으로 대별할 수 있음
- 개인 선호에 입각한 설명은 노조에 대한 선호가 감소했다는 것으로 노조의 임금프리미엄 감소(Kaufman, 2004)나 인적자원관리 정책의 노조대체 효과(Katz & Kochan, 2004) 등이 원인으로 지적됨
- 거시적 관점에서는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및 이를 넘어서는 생산물 시장 또는 산업구조의 변화, 생산기지 이전, 숙련수준의 변화 등을 포함하는 세계화의 영향, 그리고 국가 및 사용자들의 반노조적인 정책 및 관행, 더 나아가 친노조적 사민주의 정당의 쇠퇴 또는 그들의 노선변경 등을 지적할 수 있음(Freeman, 1998; Ferner & Hyman, 1998; Kaufman, 2004; Katz & Kochan, 2004).
-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로는 미시적 관점의 분석은 어렵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하는 거시적 관점의 일부 주제들을 대상으로 노조조직률의 하락 원인을 탐색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함

조합원 수 자체의 감소인가? 더딘 신규조직화 때문인가?

- 순전히 기술적으로만 보면, 노조조직률은 분모가 되는 임금근로자 수에 큰 변동이 없을 때 조합원수가 감소하거나, 조합원수는 큰 변동이 없더라도 임금근로자수가 크게 증가하면, 또는 두 현상이 동시에 발행될 때 감소함(조성재, 김정우, 2007)
 - 현실적으로 임금근로자의 규모는 다소 늘어난다고 하면, 기존 노조의 해산 혹은 기존 조합원의 탈퇴가 있거나, 탈퇴하는 조합원보다 새로 가입하는 조합원이 더 많더라도 조합원의 순증가분이 임금근로자의 증가에 못 미칠 때 노조조직률은 하락함
- [그림 4]를 보면 - 본 글의 주요 분석시기인 2005년 이후에 - 한국의 노동조합원 수는 비교적 꾸준하게 늘어났음
 - 조합원수는 2005년의 150만 6천여 명에서 가장 최근인 2015년에는 193만 9천여 명까지 늘어났는데 이는 28.8% 증가한 수치임
 - 결국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노조조직률의 정체는 신규조합원 수의 꾸준한 증가(2005~2013년까지 22.7% 증가, 2005~2015년까지 28.8% 증가)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늘어난 임금근로자 수의 증가를 따라잡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라 볼 수 있음

[그림 4] 노조조직률 및 노동조합원 수의 변화(1989~2015년)

(단위: %, 명)



자료: 고용노동부(2016), 『2015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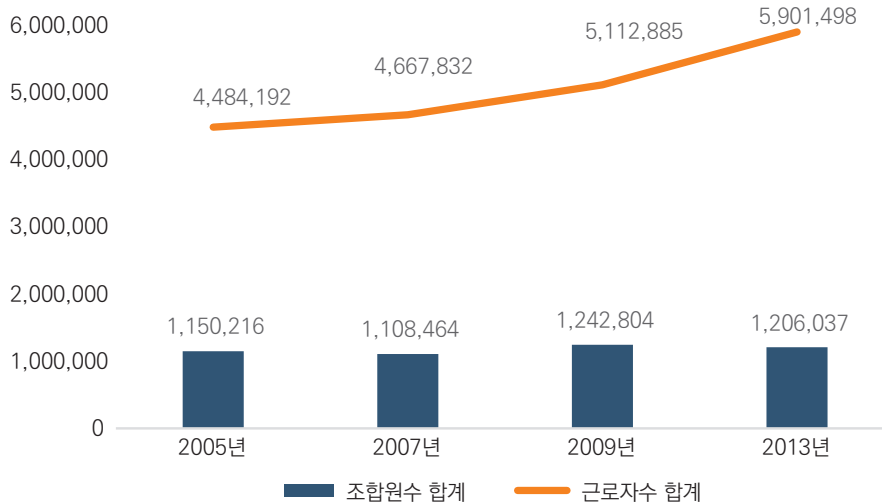
• 이를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검증해보면, 큰 틀에서 앞서 발견된 전체 노동시장에서의 현상과 유사한 결과가 발견됨(그림 5 참조)

- 2005년에서 2013년까지 노동조합원수는 1,150,216명에서 1,206,037명으로 4.9% 증가했으나 임금근로자수는 4,484,192명에서 5,901,498명으로 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31.6% 증가), 이 기간 동안 노조조직률의 감소는 전체 고용인원의 증가를 따라잡지 못한 더딘 신규조직화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사업체패널조사는 3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전체 고용인원 산정에서 배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석에 주의를 요함

[그림 5] 사업체의 조합원 수 및 근로자 수의 변화

(단위: 명)



주1): 각 년도의 횡단면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 값임.

주2): 2011년에는 이 항목이 조사되지 않음.

자료: 사업체패널조사 2005년, 2007년, 2009년, 2013년 자료.

산업구조의 변화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구조의 변화가 노조조직물에 영향을 미쳤는지 사업체패널조사 결과를 활용해 살펴보면 <표 2>와 같음
 - 제조업은 집약된 공간에 다수의 노동자가 근무한다는 측면에서, 또한 구성원의 성별 동질성(남성 위주), 작업과정 및 문화적 동질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조직화가 용이하다 볼 수 있고, 서비스업은 반대로 노조조직화의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고 가정할 수 있음

<표 2> 산업별 조합원수 및 근로자수 비율의 변동(2005년~2013년)

(단위: 명, %)

		조합원수				증감율	근로자수 증감율
		2005	비중	2013	비중		
전체		1,167,051	100.0	1,258,200	100.0	7.8	31.6
산업	제조업	423,990	36.3	449,344	35.7	6.0	13.4
	경공업	101,809	8.7	72,669	5.8	-28.6	-14.3
	화학공업	66,002	5.7	74,675	5.9	13.1	3.4
	금속·자동차	175,611	15.0	194,347	15.4	10.7	30.6
	전기·전자·정밀	80,567	6.9	107,653	8.6	33.6	17.8
	비제조업	743,061	63.7	808,856	64.3	8.9	44.0
	전기·가스·수도업	39,299	3.4	22,725	1.8	-42.2	-21.2
	건설업	25,009	2.1	25,078	2.0	0.3	46.0
	개인서비스업	94,476	8.1	113,589	9.0	20.2	26.4
	유통서비스업	333,427	28.6	337,519	26.8	1.2	11.1
	사업서비스업	163,842	14.0	193,823	15.4	18.3	79.0
	사회서비스업	87,007	7.5	116,123	9.2	33.5	56.7

주: 해당년도의 횡단면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 값임.

자료: 사업체패널조사 2005년, 2013년 자료.

- 2005년에서 2013년까지 전체 고용인원은 31.6% 증가했는데, 이 중 노조조직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서비스업의 고용증가는 44.0%에 달하는 반면 제조업의 고용증가는 13.4%에 그침
 - 조합원수 역시 증가했지만 전체 고용인원의 증가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 서비스업의 조합원은 8.9% 증가했고 제조업은 6.0% 증가함
 -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전체 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에는 조합원수도 증가했고, 전체 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에는 조합원수도 감소하는 패턴을 보임
 - 그러나 고용인원의 증가율을 상회하는 조합원수 증가율을 보인 업종은 전기·전자·정밀 제조업과 화학공업 정도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업종들, 특히 사업서비스업이나 사회서비스업의 경우 고용인원 증가에 훨씬 못 미치는 조합원수 증가율을 보임
 - 전체 고용인원이 감소한 경공업이나 전기·가스·수도업의 경우 고용인원 감소폭에 비해 조합원수 감소폭이 거의 2배에 달함

〈표 3〉 특성별 노동조합 가입 현황 추이

(단위: 천명, %)

	2009.8			2015.8			
	임금근로자수	조합원수	가입률	임금근로자수	조합원수	가입률	
산업별	농업 및 임업·어업, 광업	182	9	4.7	139	6	4.3
	제조업	3,222	474	14.7	4,006	665	16.6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95	59	61.5	91	55	60.4
	건설업	1,324	51	3.9	1,388	37	2.7
	도소매업	1,931	81	4.2	2,235	116	5.2
	숙박 및 음식점업	674	271	40.3	783	266	34.0
	운수업	1,102	22	2.0	1,426	18	1.3
	통신업	609	128	21.1	714	127	17.8
	금융 및 보험업	715	174	24.3	751	191	25.4
	부동산 및 임대업·사업서비스업	302	15	5.1	363	9	2.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21	65	9.0	910	97	10.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912	51	5.6	1,166	73	6.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178	242	20.6	950	290	30.5
	교육서비스업	1,469	187	12.7	1,458	246	16.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943	113	12.0	1,695	127	7.5
	기타	1,101	60	5.5	1,236	56	4.5
직종별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349	28	8.0	298	20	6.9
	기술공 및 준전문가	3,556	473	13.3	4,282	519	12.1
	사무종사자	3,373	658	19.5	4,116	789	19.2
	서비스종사자	1,506	71	4.7	1,840	86	4.7
	판매종사자	1,448	55	3.8	1,660	67	4.0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58	1	1.7	49	3	5.6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1,572	138	8.8	1,722	164	9.5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722	470	27.3	2,273	599	26.3
	단순노무종사자	2,895	108	3.7	3,072	132	4.3
	전 체	16,479	2,003	12.2	19,312	2,379	12.3

주: 1) 기타에는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이 포함됨.

2) 산업분류 및 직업분류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2009년과 2015년을 비교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년도 8월. 한국노동연구원, 『KLI 노동통계』, 각년도에서 재인용.

- 이상의 업종별 고용인원 및 조합원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는 어느 정도 노동조직을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며, 고용의 증감에 맞춰 적절한 조직방어 및 신규조직화를 해내지 못한 것으로 보임

-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5년 사이에 제조업의 고용인원과 조합원수는 모두 증가하였고(각각 24.3%, 40.3%), 전기·가스·수도업의 고용인원과 조합원수는 모두 감소하는(각각 -4.2%, -6.8%) 등 전체 노동시장에서도 산업구조의 변화는 조직을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표 3 참조)

직종구성의 변화

- 직종구성의 변화가 노조조직률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는지 사업체패널조사의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표 4>와 같음
 - 전통적인 생산직이나 사무직의 노조조직률이 서비스 직종의 노조조직률 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실제 2015년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26.3%), 기술공 및 준전문가(12.1%), 사무종사자(19.2%)와 같은 생산·기술직 및 사무직의 노조조직률이 높고 서비스종사자(4.7%), 판매종사자(4.0%), 단순노무종사자(4.3%)는 상대적으로 낮음(표 3 참조)

<표 4> 직종별 근로자수 구성의 변동

(단위: 명, %)

	전체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어업 숙련직	생산직	단순직
2007년	4,667,832	460,757	944,656	1,148,661	385,766	203,546	6,216	1,322,929	427,514
	(100.0)	(9.9)	(20.2)	(24.6)	(8.3)	(4.4)	(0.1)	(28.3)	(9.2)
2013년	5,901,498	533,046	1,268,770	1,146,623	509,644	240,628	11,746	1,412,693	778,349
	(100.0)	(9.0)	(21.5)	(19.4)	(8.6)	(4.1)	(0.2)	(23.9)	(13.2)
증감율	26.4	15.7	34.3	-0.2	32.1	18.2	89.0	6.8	82.1

주: 1) 해당년도의 횡단면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 값임

2) 2005년 자료는 직종구분이 달라서 2007년 자료를 활용함

자료: 사업체패널조사 2007년, 2013년 자료

- 사업체패널조사를 활용해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직종구성 변화를 살펴보면, 기존의 노조조직률이 높고 조직화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의 고용증가는 미미한 반면 조직률이 낮고 조직화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직종의 고용은 크게 증가함
 - 생산직의 경우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감소하였고 절대적 규모의 증가율도 6.8%로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무직의 경우는 상대적 비중은 물론 절대적 규모 역시 0.2% 감소함
 - 노조조직률이 낮은 단순직(82.1%), 서비스직(32.1%), 판매직(18.2%)의 고용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직종구성의 변화는 노조조직화에 우호적이지 않은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됨

고용형태 다양화

- 비정규직은 노조조직화가 어렵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 무엇보다도 고용이 안정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와 노조조직화 주체 모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유인(조직화의 효용)이 낮을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그밖에도 사용자가 노조가입을 이유로 (계약 해지 혹은 재계약 불이행 등의) 불이익을 준다거나 정규직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조직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하는 - 데이터로 확인되기는 어려운 - 제도적, 행태적 요인들도 노조 조직화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됨

〈표 5〉 사업체 특성별 비정규직 비율의 변화

(단위: %)

		2005			2013			증감		
		비정규	기간제	간접	비정규	기간제	간접	비정규	기간제	간접
규모	30~99인	12.5	4.8	3.1	10.5	5.1	2.3	-2.0	0.3	-0.8
	100~299인	16.4	5.8	5.8	17.8	9.1	5.0	1.4	3.3	-0.8
	300~499인	21.6	8.3	7.1	19.4	11.1	4.9	-2.2	2.8	-2.2
	500인 이상	21.0	8.4	7.1	23.2	12.3	5.5	2.2	3.9	-1.6
산업	제조업	11.7	2.8	3.5	8.5	1.4	3.4	-3.2	-1.4	-0.1
	비제조업	15.2	7.1	4.1	14.9	9.2	2.6	-0.3	2.1	-1.5

주: 해당년도의 횡단면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 값임

자료: 사업체패널조사 2005년, 2013년 자료

- 사업체패널조사를 통해 2005년에서 2013년 사이 비정규직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5>와 같음
 - 이 기간 동안 30인 이상 사업체에서 전체 비정규직 비율은 감소했는데 제조업의 경우 기간제와 간접고용이 모두 감소했고 비제조업의 경우 간접고용은 감소했지만 기간제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함
 - 비정규직의 비율 변동이 조직물에 미친 영향은 분명하지 않으나 이 기간 동안 비정규직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같은 시기 전체적으로 큰 규모의 고용증가가 있었으므로 절대적 숫자가 감소한 것은 아님)

〈표 6〉 고용형태에 따른 유노조사업체 근로자 중 노조가입자격이 있는 근로자 비중

(단위: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임금근로자	71.8	71.3	71.5	70.5	66.4	68.1	69.6	68.9	70.8	69.9	70.1	70.3
정규직	79.2	78.2	79.0	78.6	79.7	78.5	80.0	79.3	81.9	81.1	81.3	81.1
비정규직	47.0	47.2	47.8	40.8	24.6	31.0	31.7	31.3	31.6	29.0	27.4	28.8

주: 일일근로와 가정 내 근로는 제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년도 8월, 한국노동연구원(2016), 『2016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 56쪽에서 재인용

- 그러나 전체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의 노조조직화 환경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매우 악화된 것으로 보임
 -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해 유노조사업체 중 노조 가입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규모를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의 그 비율은 2005년의 79.2%에서 2013년 81.9%, 2016년 81.1%로 소폭 증가함(표 6 참조)
 - 반면에 유노조사업체의 비정규직 중 노조 가입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비율은 2005년의 47.0%에서 2013년에는 31.6%, 2016년에는 28.8%로 크게 줄음

〈표 7〉 고용형태에 따른 노조가입자격이 있는 근로자 중 실제 조합원 비중

(단위: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임금근로자	70.5	68.9	68.0	69.9	69.5	67.9	65.3	66.4	67.1	67.6	67.6	66.1
정규직	71.1	69.8	68.9	70.5	70.8	69.1	66.5	67.3	68.7	68.2	68.1	67.0
비정규직	67.2	63.8	63.7	65.7	56.0	56.7	54.5	57.6	52.9	61.4	62.3	55.8

주: 일일근로와 가정 내 근로는 제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년도 8월. 한국노동연구원(2016), 『2016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 57쪽에서 재인용.

- 가입자격이 있는 근로자들 중 실제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의 비율은 고용형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격차는 더 확대되는 추세임
 - 노조 가입자격이 있는 정규직 중 실제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의 비율은 2005년의 71.1%에서 2013년 68.7%, 2016년 67.0%로 꾸준히 감소함
 - 비정규직의 그 비율은 2005년에는 67.2%로 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13년에는 52.9%, 2016년에는 55.8%로 감소하였고 격차도 증가함
- 이상의 우리나라 전체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결과는 고용형태에 따라 노조 조직화의 가능성이 매우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함
 - 노조가 있는 사업체에서 정규직의 경우 10명 중 8명 정도에게 노조가입 자격이 주어지고 가입자격이 있는 정규직 10명 중 7명 정도가 노조에 가입하는 반면, 비정규직에게는 10명 중 3명 정도에게만 가입자격이 주어질 뿐 아니라 실제 가입하는 비율도 10명 중 5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임
 - 따라서 노조조직률의 반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무노조 사업장에 대한 노조조직화와 더불어 유노조사업체에서도 비정규직에게 상대적으로 몹시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는 가입자격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5. 요약 및 시사점

- 한국의 노조조직률은 지난 10여 년간 10%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이는 서구와의 상대적 비교에서는 물론 절대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임
 - 2013년을 기준으로 노조조직률보다 협약적용률이 평균 2배 정도 높은 OECD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의 협약적용률은 노조조직률보다 약 1.17배 높을 뿐임
- 사업체패널조사로 분석한 30인 이상 사업체의 노조가입률은 2005년의 26.1%에서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2013년 21.3% 수준임
- 같은 자료로 구한 협약적용률 역시 2005년의 34.3%에서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2013년에는 27.0%를 나타냈고, 노조조직률을 넘어서는 협약적용률의 크기 역시 일관되게 감소함

- 이러한 전체 노동시장 및 30이상 사업체 집단의 현황을 통해 2000년대 중반 이래 노동조합의 힘은 완만하게 쇠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2005년에서 2015년까지 노동조합원수는 28.8% 증가했지만 분모가 되는 임금근로자 역시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노조조직률은 정체함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구조의 변화, 즉 산업별 취업자 구성의 변화와 직종구성의 변화는 더딘 신규 노조조직화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 전체 노동시장에서 유노조 사업체 중 노조가입 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비중은 정규직의 경우 별 차이가 없는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그 비중이 매우 크게 감소하였고 실제 가입한 근로자의 비중도 적지 않게 하락함
- 향후 노조조직률의 반등을 위해서는 무노조 사업체의 노조조직화 뿐 아니라 이러한 유노조 사업체에서의 비정규직을 노조로 좀 더 포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16), 『2015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 박지순(2010), 『우리나라 단체협약 적용률 실태파악 및 외국사례 비교분석』,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 조성재·김정우(2007), 『한국의 노사관계 변화 추이 분석 및 새로운 노사정책 방향』, 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 한국노동연구원, 『KLI 노동통계』, 각 연도.
- 한국노동연구원(2016), 『2016 KLI 해외노동통계』.
- 한국노동연구원(2016), 『2016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
- Ferner, A & R. Hyman(Eds.)(1998), "Toward european industrial relations?" *Changing industrial relations in Europe*, Blackwell Publishers.
- Freeman, R. B(1998), "Spurts in union growth: Defining moments and social processes," in D. Michael, B. C. Goldin & N. W. Eugene (Eds.), *The Defining Moment: The Great Depression and the American Economy in the Twentieth Centur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aufman, B. E(2004), "Prospects for union growth in the United States in the early 21st century," in A. Verma & T. A. Kochan(Eds.), *Union in the 21st Centur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Palgrave Macmillan.
- Katz, H. C. & T. A. Kochan(2004), *An Introduction to Collective Bargaining & Industrial Relations*, McGraw-Hill.
- OEC(2016), *Economic Policy Reform*.